



전북 주요 플랫폼 연계 협력 회의 전북자치도는 도내 주요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일 전북사랑도민증, 생생장터, 전북투어패스, 참참플랫폼 운영 관계자들과 함께 플랫폼 연계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도>

전북 농생명산업, 특별법 특례효과 ‘괄목’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공수의 위촉 등 12개 조문 발굴 현장 실행
한우 개량·귀농·귀촌 지원 확대... 맞춤형 정책으로 경쟁력 강화
지구별 맞춤형 추가특례 발굴에 도, 시군, 전문가 등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가 농생명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정책 시행에 본격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공수의(검사관) 위촉, 한우 개량 전담기관 지정, 귀농·귀촌 지원 확대 등 12개 조문을 발굴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7곳을 선정했으며, 이를 국가적 농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 지역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주요 특례 중 하나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명의 공수의를 위촉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도내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는 도내 한우 개량을 위해 축산연구소를 전국 최초로 한우 개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존 국가 주도의 씨수소 중심 개량에서 벗어나 암소의 유전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개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이던 정착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지원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농어촌에 안정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 10일 전북연구원에서 도, 시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산업지구 특례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농생명산업 분야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별 맞춤형 추가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농생명산업지구별 맞춤형 추가 특례 발굴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및 입법 추진 방안 ▲예비 지구의 사업 구체화 및 국가적 거점지구 지정 추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구별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농생명산업 분야에서 전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난해는 전북특별법을 통해 도입된 특례가 농생명산업지구 전반에 적용되는 단계였다면, 이제 각 지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외국인 들어 지방소멸 극복

도, 외국인 정착 지원 확대...인구 유입으로 소멸 위기 대응
장기 거주 취업 지원으로 쇠락한 농촌지역 활력 회복 기대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2022년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인구 10% 범위 내 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적극 반영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인구감소 심각지역인 익산시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당 외국

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도지사 추천을 통해 외국인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숙련기능인력(E-7-4)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등 4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는 유학생(D-2, D-10)과 전문인력(E-7)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취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50명까지 확대됐으며, 취업 업종 제한도 폐지됐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순노무 종사자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는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는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발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정착 초기에는 생활필수품과 정착 안내서가 포함된 ‘전북사랑 키트’를 제공한다.
/김은지 기자

도, ‘돈움에서 혁신까지’ 성장사다리로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47단계 성장사다리 지원, 4월 10일까지 모집
96억 투입, 51개사 선정...혁신기업 신설·바우처 시범 운영

전북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돈움, 도약, 선도, 혁신기업 총 51개사를 선정해 9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바우처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성장사다리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기업에는 ESG 의무 지원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며, 역행기업 방지 항목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모집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돈움기업(1~10억) ▲도약기업(10~50억) ▲선도기업(50~1,500억) ▲혁신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 100억 이상 &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으로 구분된다. ‘돈움기업(1단계)’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를 선정해 총 27억을 지원하며 3년간 기술개발(R&D),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 ESG 경영 확산 사업 등을

지원한다. ‘도약기업(2단계)’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장하는 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해 총 17억을 지원하며 3년간 R&D, 사업화 마케팅, 컨설팅, ESG 경영 확산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선도기업(3단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해 총 47억을 지원하며 5년간 R&D, 마케팅, 기업공개(IPO) 지원, ESG 경영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기업(4단계)’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4개사를 선정해 총 5억을 지원하며 3년간 R&D 사전 기획 컨설팅,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 위촉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1개국 출신 17명 리더단 구성…센터-외국인 거주자 간 가교 역할 기대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9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회의실에서 ‘전북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은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11개국 출신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각 국가별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리더들이 참석해 전북에서의 생활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리더단 활동은, 온라인에서는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센터의 주요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제언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가별 소모임을 운영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외국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필리핀 출신 커뮤니티 활동가 유민경 씨는 “전북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같은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네팔 출신 수딤 씨는 “전북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리더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센터에서는 ‘전북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에 거주하는 미얀마 근로자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주요 사업을 소개받고 외국인 근로자 간 네트워킹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북에서의 생활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간담회 후에는 미얀마 음식을 함께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정읍에서 온 텃아웅 씨는 “전북에서 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미얀마 사람들과 공식적인 모임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장은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이 위촉된 만큼, 센터와 외국인 거주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청년들 글로벌 진출 지원나서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자 9명 모집…생활지원금 및 인터뷰 대비 교육 등 사전 교육 제공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북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도내 청년들을 검증된 해외기업에 파견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2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으며, 생활지원금도 1인당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사회배려계층 청년에게는 생활지원금을 20% 추가 지원해 보다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사관 인터뷰 대비 교육, 해외 생활 적응 교육 등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적격 심사와 기업 매

칭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합격자는 5월 중 국내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해외로 출국하게 된다.

인턴십은 재외동포청의 검증된 한상기업 네트워크 내 기업에서 진행되며 무역, 행정, 마케팅, 디자인, 상경, 물류 등 다양한 직무로 6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김대식 원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해외 경험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며 “특히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외 인턴십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 오후 5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김관영 도지사, 완주군 방문 연기…정치적 상황 고려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 집행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김 도지사는 도내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오는 13일 완주군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지역통합 문제 등 ‘정치적 민감도’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한 데다 완주·전주 통합 찬반 단체의 강경 행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찬반 단체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지역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관측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완주군 방문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정치적 상황과 지역의 갈등 구조가 맞물려 있어 불가피하게 완주군 방문을 연기하기로 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윤준병 의원, 당원결의대회 개최…윤석열 파면 촉구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 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결속을 강

화하며, 급변하는 정국에 적극 대응하는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읍·고창지역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소속 정읍시의회 의원, 고창군의회 의원, 당직자와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결정 촉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

를 다졌다.

행사는 윤 지역위원장의 시국진단 연설을 시작으로, 염영선·김성수 도의원의 시국발언, 김용훈 특별위원장과 김미숙 국장의 결의문 낭독, 피켓 퍼포먼스,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서울=김영목 기자

운영속도의원 디지털기기화재예방토론회열어

전국 최초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위한 체계적 대응 모색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운영속(익산3)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서영수 교수, 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오선화 과장, 전주양현고 이원형 교장, 비엔피컬처 양세벽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도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배터리 내장 전자기기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디지털기기 사용이 급증하면

서 배터리 폭발, 과열, 전기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기관 차원의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에 교육기관 내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디지털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토론회를 통해 교육기관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이원택 의원,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첫 시동

농업·임업·수산업 현장 교류 협력 강화…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등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현안과 정책 개선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100여 개 단체를 전담해 현장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이하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탐방 첫 일정으로 열린 한국육계협회 간담회에는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 등이 참석해 ▲신속한 수급조절을 위한 농식품부장관 직권의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 ▲자문 역할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로 격상 ▲수입산 닭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한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도입 등 육계 관련 현안을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어 김제시 소재 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내수면양식단체협의회 오근호 회장,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이기봉 회장, 한국송어양식협회 손희륜 회장, 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송병운 회장, 한국항어협회 이항희 회장, 민물장어생산자협회 신영래 회장, 전북내수면양식연합회 김철호 회장 등이 참석해 ▲해수부 내에 내수면산업과 신설 ▲양식장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 지원 대책 등 내수면 양식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중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현장을 점검하고 모정 설치 등 주민 편의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도로 정비, 테크로드, 모정 설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산수가 수려하고 습지 등 생태자원과 역사, 종교 등 문화자원을 보유한 생태와 힐링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2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 생태탐방로와 조망대, 각종 편의 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주거 안정책 시행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최대 460만원 지원…공공임대 외 민간주택 이주 시에도 이사비 지원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자 부담 완화…촘촘한 보호망 구축해 주거 안정 도모

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해 적용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돼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 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정소민 기자

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화석연료 차량 총 3천여대 지원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이다. 도는 올해 작년과 동일한 3천108대의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와 및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단,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만 최종 승인 처리되며, 1인당 1대 차량만 가능하다. 또한, 사진 제출 선택 순으로 승인되고 사업량이 소진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신차의 경우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참여 일자까지, 중고차의 경우는 차량 인수일로부터 참여 일자가 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정 및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에너지 감축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 또는 해당 시군청에 문의해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2008~2024년까지 도내 총 24만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안전한 양식장’ 40곳 인증

해수부처럼 196개 항목 조사, 조사량도 45% 확대…3년 연속 적합 판정받은 40개 양식장, 올해 첫 인증서

전북자치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 항목과 조사량을 대폭 강화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20년부터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왔다. 초기 40개 항목에서 출발한 조사는 지난해 179개 항목까지 확대됐으며,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적용하는 조사 기준과 동일한 196개 항목을 전면 도입한다. 조사 대상에는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조사량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는 870건으로 45% 이상 확대해 촘촘한 조사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처럼 강화된 안전성 조사는 생산단계부터 위관장까지 이어지며 도내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로 이어진다.

도는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를 통해 청정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

진한다. 이 제도는 양식장이 3년 동안 매년 안전성 조사를 받아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아야만 도지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2년부터 130개 양식장이 인증을 목표로 관리 어가로 지정돼 매년 꼼꼼한 안전성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3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은 40개 양식장이 마침내 전북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현재 인증을 준비 중인 관리 어가는 총 90개소로, 이들 역시 남은 기간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청정 양식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통해 도내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구축해 민간 빈집 거래 환경 조성한다

실태조사로 파악된 빈집 중 거래 활용 동의한 빈집 한해 매물화 작업,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거래 유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

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물식품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

에(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해 제공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무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대표 플랫폼들, 실질적 연계 강화해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

전북자치도가 도내 주요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일 전북사랑도민증, 생생장터, 전북투어패스, 참참플랫폼 운영 관계자들과 함께 플랫폼 연계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사랑도민증 이용 활성화 및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치, 농특산물 판매 확대, 농촌 숙박·체험 활성화 등 다각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간 연계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전북사랑도민증을 활용한 플랫폼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전략과 단계별 연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



전북도가 도내 주요 플랫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전북사랑도민증, 생생장터, 전북투어패스, 참참플랫폼 운영 관계자들과 함께 플랫폼 연계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로 다뤄졌다.

또한, 플랫폼 간 실질적인 연계 강화

를 위해 ▲전북사랑도민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용어 리브랜딩 검토 ▲플랫폼

간 교차 혜택 제공 체계 구축 ▲전북사랑도민증 가맹점 확대 및 투어패스·농촌체험·숙박 연계 활성화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연계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북사랑도민증 발급자 증가 ▲생생장터 판매량 증대 ▲투어패스 이용객 증가 ▲참참플랫폼 회원 가입자 확대 등 성과관리 지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주요 플랫폼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북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농협, 콩나물콩 생산자협의회에 재해지원금 전달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달 21일 이상기후로 인한 콩 피해확산으로 콩 생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콩나물 콩 생산자협의회에 300만원의 재해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협 자체조사 결과 현재 수매한 콩에서도 상품성 저하로 인해 상품 비율

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돼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전달식은 전미동 DSC에서 진행됐으며, 전주농협을 대표해 박건후 교육실장이 이대연 콩나물콩 생산자협의의 회장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박건후 실장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주농협은 앞으로 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준호 기자

도공 전북, 호남선 교량 개축 작업장 등 안전성 점검 실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교량 전면 개축공사’가 진행 중인 소룡육교 등 3곳의 작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진단 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후화된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호남고속도로의 ‘소룡육교’, ‘강천교’, ‘용산천교’ 3곳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

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구조·토질 분야의 전문 기술인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구조물 안전성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한편, 해빙기를 대비해 11일부터 고속도로 비탈면, 옹벽 등 본선 시설물뿐 아니라 휴게소·톨게이트까지 고객과 접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시군, 재정 신속집행 총력…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교부세 지원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

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급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

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원도심학교 맞춤 지원 대폭 확대

전주 27개교 등 총 52개교 운영... 재정 지원 확대·도심 속 작은 학교 공동통학구 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원도심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원도심학교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도심 속 작은 학교 살리기 대표 정책이다.

올해 원도심학교는 전주 27개교(초 18, 중 9), 군산 12개교(초 11, 중 1), 익산 13개교(초 11, 중 2) 등 총 52개교가

운영된다.

최근 3년간 원도심학교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율 12.9%로 전체 시 지역 초등학교 평균 감소율 9.1%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원도심학교 52개교 중 50%인 26개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 학교에 해당,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 및 체험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실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원도심학교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원도심

학교 운영 학교 수를 52개교로 늘리고, 재정 지원을 1교당 평균 3,200여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력 신장, 체험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원도심학교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편성기준을 완화했다. 동 지역 일반 학교 학급당 기준인원은 27명이지만 원도심학교는 25명으로 낮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도심 속 작은 학교(원도심학교) 공동통학구’도 신설했다.

학생수 감소율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학교와 주변 큰 학교(동일 행정동)를 공동통학구로 설정해 작은 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원도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전주팔복초등학교(전주조촌초등학교)와 미룡초등학교(군산용문초등학교), 이리남창초등학교(이리서초등학교)이다.

/최성민 기자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대전환 결심 땀어야”

전략회의서 당부...“올 연말, 전북교육 대전환 시작한 지 3년 6개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올해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인 만큼 각 부서는 지난주 경영계획 발표를 토대로 정책 사업의 목표가 뚜렷한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은 명확한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올해 경영계획 슬로건 ‘도약을 넘어 결실로’를 언급하며 “올 연말

이면 전북교육 대전환을 시작한 지 3년 6개월이 되는데, 도민과 학부모들은 ‘그동안 어떤 변화를 이뤄냈느냐’,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이어 “새 학기가 시작됐다”며 “교육장들께서는 관내 학교를 찾아다니며 개별 학교의 어려움을 무엇인지,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교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국장들과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해서 가능한 한 많은 학교를 돌아봐 달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진주영 연구원,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구논문 2편 발표

다공성 브롬화구리(CuBr) 이용한 고감도 암모니아(NH3) 가스 센서 연구... 센서 분야 세계적 권위지 2곳에 잇달아 게재



전북대학교 유원인쇄전자전문대학원 진주영 연구원(2025년 2월 석사과정 수료, 지도교수 김태욱(사진))이

석사과정 2년 동안 뛰어난 연구 성과를 연이어 거두며 관련 분야 학계를 이끌 미래 동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 연구원은 석사과정 2년 동안 주저

자로 참여한 논문 2편을 국제 저명 학술지에 잇달라 게재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다공성 브롬화구리(CuBr)를 이용한 고감도 암모니아(NH3) 가스 센서 연구는 센서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IF:8.0, 상위 0.7%)와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에 잇달아 게재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암모니아 센서의 고비

율, 고온 공정, 높은 전력 소비 등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주목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저온에서도 간단한 용액 공정으로 제작 가능한 다공성 구리브롬화물(CuBr) 필름을 개발했다.

이 연구 기술의 확장성도 기대된다. 진 연구원은 이 기술을 응용해 차세대 메모리 소자로 활용 가능한 이원계 합라이드(CuBr) 기반 소자의 스위칭 특성

을 발견하고, 저장 변화 메커니즘을 제시한 연구 논문을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IF : 5.8, 상위 8.3 %)에 게재했다.

진 연구원은 “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좋은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5년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본격 추진

전북시민대학, 6개 지역캠퍼스 선정 14개 대학과 협업·현장 체험 등 실전형 교육 확대... 도민 누구나 무료 수강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025년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심사를 거쳐 6개 지역캠퍼스를 선정하고, 도내 14개 대학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시민대학은 도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내 6개 지역캠퍼스에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민의 학습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지역문제 해결형 학습 등을 포함한 실전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료 후 도민들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 공익 프로젝트를, 지역 협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학습의 사회적 환경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북시민대학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캠퍼스별 자세한 교육과정과 수강생 모집 일정은 전북시민대학 누리집(lms.jbil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은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지난 8일 개최했다

고 밝혔다. 미래융합대학은 전북 지역 일반대학 최초의 성인학습자 친화적 단과대학으로, 이번 입학식은 지역의 성인학습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입학식은 박진배 총장과 한동송 미래융합대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 학과장 및 교직원 소개로 진행됐다.

아울러, 신입생 및 재학생 대표 인사와 신입생 남대표와 여대표의 신입생 선서를 통해 사회 생활을 통해 배운 경력을 기반으로 학업에도 매진하기 위한 포부를 다졌다.

/최성민 기자

교육, 이야기와 함께하는 전북 생태 역사 탐방, 종이 없는 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저탄소 환경급식, 자원봉사의

날·정령의 날 운영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ESG 환경·사회·윤리경영 실천 10대 핵심과제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ESG(환경·사회·윤리경영) 교육 및 실천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북교육청

ESG 교육 및 실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 ‘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ESG 실천을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자연과의 공존(E), 사회적 책임(S), 윤리적 경영(G)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ESG 실천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과제로는 ▲생태전환 교육 확대

및 탄소 저감 실천(E)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S)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및 투명 경영 실천(G) 등을 설정했다.

생태전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

봄철 건강관리

-면역력 높이는 생활습관-

자주 손을 씻는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하루에 한번 실내를 환기한다.

따뜻한 차와 물을 충분히 마신다.

실내는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매일 30분씩 적절한 운동을 한다.

군산시,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접수 시작

군산시가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 가구로,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가액) 2억 원 이하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송장 지우개 등 5종의 방범용품 중에서 최대 3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군산시청 누리집(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가축분뇨 살포 집중 점검…약취 저감

익산시가 영농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단속으로 약취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축산농가와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영농철이 되면 부숙이 덜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축산 약취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시는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약취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비제방전 발광 즉시 부숙도 검사를 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추적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유출을 차단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적정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와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한다.

시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군산시가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복지편의 개선사업 2개 분야이다.

시는 작년에도 2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근무환경 개선 분야 17건, 복지 편의 개선 분야 9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시설(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약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복지편의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200인 미만인 군산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복지 편의 개선사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군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063-454-2772) 또는 이메일(dhee090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국가예산·국책사업 발굴보고회

공공위케이션 시범사업·새만금동서 1축 10차로 확장 등 24건 신규사업 발굴

군산시가 지난 10일 지역발전을 위한 '2026년 국가예산 및 국책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강임준 시장 주관으로 부시장과 국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과 플라즈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군산대, 호원대 등 관내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지역발전 국가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군산시는 2026년 국가예산 발굴 목표로 ①정주 여건 개선, ②신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③문화·체육·관광 기반 시설 조성, ④사회 기반 시설 및 자연재난 대응 등 총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24건에 총사업비 1조 6,304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군산시에서 발굴한 주요 사업은 ▲군산형 공공위케이션 시범사업, ▲새만금동서 1축 10차로 확장, ▲해양 무인 이동체 O&M 기반 시설 구축, ▲군산 산복동 화석 산지 전지관 건립, ▲수산식 품단지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승하



군산시가 지난 10일 지역발전을 위한 '2026년 국가예산 및 국책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원 화장으로 개·보수, ▲나운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맥류 사업 다각화지원 시범사업 등이다.

이어서, 관내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제안한 국가사업은 ▲AI(인공지능) 기반 플라즈마 산업 협력 지구 구축(안) ▲군산 해양레저치유관광 2030 ▲K-컬처·세계로 미래로 ▲군산시 실내 생활발광 전시 ▲군산시 철도 및 대중교통 추진 전략 등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들은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정지권 공조를 강화하여 예산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어, 신규 국가예산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군산시에서는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산업 선도 쟁점음

동물용의약품상용화기술연구조합맞손…연구개발기술상용화등 동물용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이끌 중심 도시 도약에 나선다.

시는 (사)동물용의약품상용화기술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 기술 상용화 등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연구조합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 과제에 선정된 우진비엔지(주) 관련 기업, 대학과 함께 국내 동물

용의약품 업계 최초로 설립한 조합이다. 기업은 우진비엔지(주)와 ▲녹십자수의약품(주) ▲미라클스코프(주) ▲썬윌렉스 등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하고, 대학은 전북대와 부경대가 함께한다.

연구조합 사무실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내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기업지원관에 위치해, 익산시가 추진하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시는 연구조합,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과 함께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와 향후 구축될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 ▲인수공통연구지원 보존센터 등과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함께 해요! 하림치킨로드” 익산시·하림 업무협약

영유아 대상 '지역 기반형 하림치킨로드 투어 체험' 추진…현장 체험 확대·지역 기업 발전 기대

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반형 하림치킨로드(HCR) 투어 체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험은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학교가 지역 주도 유아공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소재 기업과 연계한 현장 체험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하림치킨로드 투어는 영유아들에게 친숙한 닭고기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다. 하림의 최첨단 단계·가공시스템을 견학하고, 닭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해 만들어지는 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시식도 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영유아들에게 식품 생산의 중요성과 위생 관리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기업 홍보 효과로 (주)하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평가 A등급 획득

취약계층 지원·사회적고립해소위한프로그램운영·지역자원연계통합서비스다양화등우수성적받아

정읍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되며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87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운영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으며 정읍사회복지관은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회적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A등급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정읍사회복지관은 정읍에서 유일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동학마라톤, 전국마라토너 모였다!

5000여명 참가…교통통제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

정읍동학마라톤이 6년 만에 다시 열리며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9일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에는 50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회가 다시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몰렸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방 마라톤 대회에서는 드물게 풀코스를 도입해 참가자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를 출발해 상교통주민센터, 교양교차로, 송학삼거리, 내장산 우화정을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내장산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레이스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들과 시민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질주했고, 가족 단위로 참가자들도 함께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민들은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일자리통합플랫폼구축…모든 일자리 한눈에

구인기업·구직자간 쌍방향 소통…맞춤형 매칭 서비스 지원

익산시가 지역의 모든 일자리를 한 눈에 담은 '익산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익산의 구직자와 기업 간의 직접 매칭을 지원하고, 각종 고용 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이다.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될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지역 내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한 데 모아 시민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와 연계해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국토교통·도시경영전문가'인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에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중앙당 핵심기구이다. 정책위는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정호 전 차관은 국토교통·도시경영전문가로서 장점을 살려 국가적 당면과제인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 이준석

(익산갑)·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최 전 차관은 "이준석 의원이 강조한 KTX 익산역 기능 확대 및 선상주차장 조성, 중앙동 등 낙후된 도시를 살리는 것, 익산과 군산, 김제 등을 포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익산시가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푸드테크산업 육성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중앙당 정책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잘먹고 잘사는 익산' 실현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일본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관계기관간담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관계자 24명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해상풍력 선진지를 방문했다.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방문은 군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성사됐다. 또한 일본의 해상풍력 발전 운영 및 수산업 종사자들과의 공존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방문단은 먼저 일본 이시카리만 해상풍력단지를 견학했다. 다음으로 일본 해상풍력 발전사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홋카이도청에서 해상풍력 정책과 관련 제도를 청취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일본의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사례, 지자체의 역할, 발전사업 추진 방식 등을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해상풍력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순창 대학 신입생, 진학축하금 받는다

대학 신입생 군민 1인당 200만 원 진학 축하금 지원…21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1,600만원 대학 생활지원금까지…학부모 부담 완화·교육 복지 확대

순창군이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재)순창군 육천장학회에 직접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생활비 마련에 대한 걱정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특성화고 등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순창군이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진학 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 달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공식 웹사이트 순창군육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23년부터 대

학 진학 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를 순창에서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연간 최대 400만 원, 4년간 총 1,600만 원(진학 축하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생활 지원금은 오는 5월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개최

전통 계승 및 신진 목공예가 발굴…총상금 1억 3천만 원 규모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옷칠 분야 공모전인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이 옷칠 목공예의 고장 남원에서 개최된다.

이 대전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 목공예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옷칠 목공예가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공모전이다. 전통 옷칠 목공예의 계승과 신진 작가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열리는 이 대전은 매년 전국의 많은 공예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옷칠로 디자인한 일상생활 목공예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전 분야는 '옷칠 목공예'와 '갈이 공예' 분야로 다양한 옷칠 공예 소재 중에서도 남원을 상징하는 '목공예'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국 전통 목기 제작 기술인 '갈이 공예' 분야를 별도로 구성해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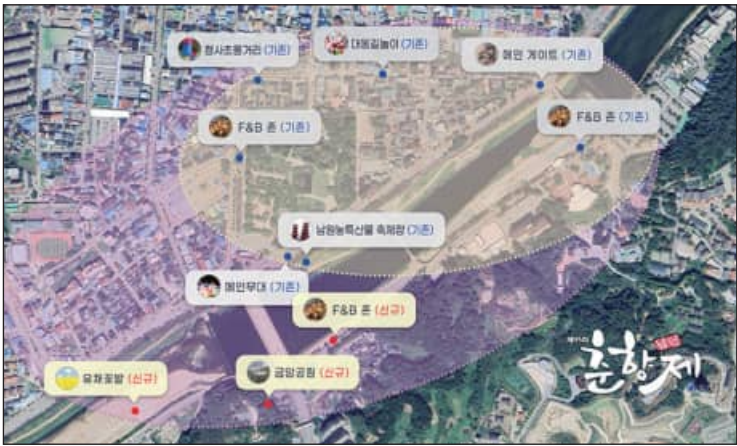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남원시청과 서울 남원장학숙 2개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시상은 총 37점으로 상장과 상금은 총 1억 3,000만원(대상 3,000만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제95회 춘향제 기간 중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수상자 전시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67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춘향제, 확장된 공간으로 관광객 맞이

금암공원·유채꽃밭·먹거리·차박 존·다양한 프로그램 등 확충

올해 제95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 남원 춘향제는 더욱 확장된 공간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제95회 춘향제는 올해 처음 기존 관한루원과 요전 일대에서 진행되던 행사장을 금암공원과 유채꽃밭까지 확대하고, 먹거리 공간을 확충해 방문객이 더욱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암공원은 야경 명소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올해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야간경관을 추가 조성해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인다. 주간에는 다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유채꽃밭은 승사교 아래 둔치 유휴지 3ha를 활용해 조성되며, 춘향제

기간 동안 대표작인 포토존으로 운영된다.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차박&캠핑 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공간도 한층 더 확장된다. 기존의 경외상가, 사랑의광장 앞 요전둔지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요전 하단까지 확장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춘향제에서는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도 마련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동행축제(춘향제 페스타 합인행사) ▲남원의 소리 공연·전시 ▲일장춘몽 콘서트 ▲전통·한대의 조화 요즘국악 ▲남원 시민 300여 명 참여 대규모 시민 공연 ▲'춘향제 아카이브 전시장' 등 100여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산림조합, 표고버섯 재배 기술 교육 실시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은 지난 7일 완주군 관내 산주·임업인과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J산림문화복합센터에서 표고버섯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주관, 완주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사업이자 지역현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박사를 강사로 초빙, 표고버섯의 생육환경과 원목, 톱밥 배치에서의 재배 기술에 관한 내용, 표고버섯 재배의 기초부터 시설 관리 방법 등을 다

뤘다.

산주·임업인들은 배지 관리, 시설 관리 등 실제 표고버섯을 재배 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궁금했던 사항은 강사에게 질의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임필환 완주군산림조합장은 "SJ산림문화복합센터에서 이뤄진 표고버섯 재배교육이 산주·임업인 및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임산물 재배 교육으로 산림경영지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아너스클럽 정기총회 개최…지역 발전 앞장



순창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순창아너스클럽'이 지난 7일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2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회계결산 보고 승인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 ▲정관 변경 및 모임 활성화를 위

한 회원 의견 수렴 ▲자발적 회원 증대 문화 조성 등 순창아너스클럽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지난 2023년 9월 창립된 순창아너스클럽은 500만 원 이상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순창아너스클럽은 단순한 기부부를 넘어 나눔 교류 활성화와 지역 행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2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에도 동참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저능력 한우 암소 도태 지원…경쟁력 제고

완주군이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을 추진해 한우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과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25년 한우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완주군은 번식력이 낮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능력 암소의 선제적 도태를 지원해 한우 도매가격을 조절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군은 10일부터 전주김제안축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받아 총 200두를 대상으로 도태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50개월령 이하의 경산우이며, 개체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평생학습관, 원어민 1:1 화상 외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남원시는 시민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025년 원어민 1:1 화상 외국어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영어와 중국어 2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1일 개강을 시작으로 7개월간 진행된다. 1:1 원어민 매칭을 통해 화상으로 외국어 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좌이다. 만 18세 이상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료는 월 2만원이다.

수업은 1주 60분 과정으로 운영되며 단계 테스트를 거친 후 월·수·금(20분) 또는 화·목(30분) 수업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수업은 화상 교육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영어 142명, 중국어 25명 총 167명으로 수강생은 영어와 중국어 중 1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수강 신청은 오는 10일 10시부터 남원시 화상 외국어 홈페이지(www.namwonedu.kr)에서 정원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00-4734, 상담 가능 시간 10시~18시)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AI 케어롤 도입 운영 중장년 고독사 예방 강화

완주군은 중·장년 세대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네이버 케어롤 서비스를 도입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AI 네이버 케어롤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전화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AI가 대상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AI는 이를 통해 대상자의 일상, 병력 등을 학습한다. 위험상황이 감지됐을 경우 담당자에게 고지한다.

올해 완주군은 돌봄이 필요한 13개 읍면의 170명의 대상자에게 주 1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상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AI 네이버 케어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290-2177)으로 신청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향교, 2025년도 춘기 석전대제 봉행

공기 2576년(서기 2025년) 순창향교 춘기 석전대제가 지난 9일 순창향교(전교 유양회) 대성전에서 유림과 군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석전대제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초헌관을, 손종식 순창군의회 의장이 아헌관을,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종헌관을 각각 맡아 제례시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헌작을 올렸다.

순창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五聖)과 십철(十哲), 송나라 육현(六賢), 그리고 우리나라 동국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석전대제는 이들을 기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전통 제례다.

유양회 전교는 "순창군에서 지속적으로 향교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덕분에 올해도 예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의 소중한 유교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시는 향교 유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러한 전통문화가 미래 세대에게도 의미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향교는 석전대제를 비롯해 전통예절 학교, 일요학교 등 인성교육과 기로연, 전통놀이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귀농귀촌 모델 '주목'…타 지자체 벤치마킹 이어져

전북 귀농귀촌 1위 완주군을 배우고자 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군산시 산곡지구 마을 주민 31명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및 컨설팅업체 관계자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산곡지구에 귀농귀촌타운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귀농귀촌의 선진지인 완주군의 모델을 배우고자 완주군을 방문했다. 이들은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 전체적인 시설을 견학했다.

군산시 관계자와 산곡지구 주민들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시설 조성 및 운영, 귀농귀촌 교육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한 많



은 관심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 및 산곡지구 주민들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귀농귀촌인에게 더욱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군산시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충청남도 각 시군 귀농귀촌 담당자가 귀농귀

촌 지원정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3년 완주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8,314명(5,675가구)로 전북 전체의 37.4%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전북 내 유입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운봉농협APC, 농산물 상품화구축 지원 공모 선정

남원시 운봉농협APC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지원 공모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려 방울토마토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게 됐다.

운봉농협 APC는 총사업비 117백만원(도비 41, 시비 18, 자부담 58) 규모로 방울토마토 상품화에 필요한 방울토마토 선별기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규모화·조직화 계획, 부지·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

한 평가로 운봉농협은 평가대상 2개소 중 1위로 선정됐다.

운봉농협은 남원시 고랭지 및 준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사과, 포도, 상추 등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 취급 품목이 파프리카로 남원시 생산 파프리카 전량을 공동선별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파프리카에서 방울토마토로 품목변경을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생산량 증가로 전체물량을 선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용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나왔다.

2025년에 운봉농협의 APC시설이 보완되면 방울토마토 공동선별 시간 단축으로 인한 품질 향상 및 균일한 선별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방울토마토 물량 확대와 소포장 물량 공급확대로 대형 거래처 납품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선별비용 감축으로 인한 원가 절감으로 거래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11일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11일부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진안군은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농식품부 기본 검진 항목 외에 초음파와 CT 촬영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총 300명이며 모집 인원을 충족할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36만원은 여성농업인의 자부담 없이 국비와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검진 대상자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61~70세) 여성 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인 '진안의료원'에 직접 예약 후 방문해 검진받을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으로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농작업 대행 서비스 농가 경영비 절감 기여…호응

무주군이 농기계 임대 및 순회 수리(교육)를 비롯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로 부족한 일손을 가들며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 78종 487대를 보유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 무주 본소를 비롯한 무풍과 안성 본소 3곳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며 하우스와 밭정지 작업을 비롯한 사료작물 수확 등 11종의 농작업을 대행한다.

또 330종 19,662점의 부품을 실은 3.5톤 무상 수리 차량이 농기계 수리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돌며 경운기와 관리기, 방제기, 예초기 등의 소형 농기계 수리와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순회 수리 관련 사업은 고령농과 여성농이 많아지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올해는 농가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안기고 농업경쟁력 또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유교 전통문화 계승

장수군은 지난 9일 장수향교(전교 이경술) 주관으로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석전제·상정·정제라고도 하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 및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성현들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서 초헌관은 육동수, 아헌관은 고봉기, 종헌관은 신인식 유림이 봉행했으며, 전통 제례순에 따라 초헌관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했다.

이경술 장수향교 전교는 "석전대제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예절과 효충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향교에서는 장수의 유교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계승해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특례보증 실행…최대 1억까지

‘2025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75억원 규모·5년간 연 3% 이자 지원

진안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2025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과 NH농협은행 변성섭 진안군지부장, 전북은행 전상의 부행장이 참석했다.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란 진안군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총 6억원을 출연해 총 75억원 규모의 대출을 10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진안군은 대출 기간 5년간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7일 기준 대출금리는 연 4.9%로 군이 이자를 3% 지원해주면 고객 부담금리는 연 1.9%수준이다.



진안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2025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시행되는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작년 기준 353개 업체에 132억원의 대출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진안

군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문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녹반석벼루장’, 무형유산 지정된다

전통벼루공예기법 전승및보존녹반석산지,장수 침령산성변암면 등지서확인…道 무형유산으로

‘장수녹반석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신규종목으로 지난 7일자로 지정 예고됐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녹반석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로부터 ▲전통벼루 공예기법을 전승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점 ▲벼루의 원석인 ‘녹반석’ 산지가 장수 침령산성, 번암면 등지에서 확인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수녹반석벼루장’은 한국의 서예문화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울산 벼루장, 충남 보령남포벼루제작, 충북 자석벼루장, 경기도 벼루장에 이은 5번째 벼루장으로 종

목을 인정 받았다.

특히 장수녹반석은 ‘곰돌’로 알려진 각섬석에서 녹색 계열 반점이 확인되는 석재로서 녹색 반점의 석역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벼루 원석으로 최상의 조건을 지닌 석재라 할 수 있으며, 공주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보물)와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꾸집 일괄(보물)이 장수산 곰돌로 제작된 대표적 유물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녹반석 벼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됨을 환영한다”며,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장수군의 무형유산 발굴을 이끌어나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확대

사고 당시 무주군민일 경우, 현 소재지·발생지역 무관…개인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시 보장 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준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 보완하거나 또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올림픽 후보 도시 전북도 선정…임실군 종합사격장 주목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가운데 임실군에 있는 종합사격장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올림픽 최종도시로 선정될 경우 임실군 소재 종합사격장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올림픽 유치 국내 도시로 선정되고, 앞으로 큰 대회를 치르려면 사격장 시설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이 절실히되고 있다.

현재 클레이사격장의 경우 2개 사로만 운영돼 원활한 경기 진행이 어렵고,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의 높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수로 방수를 포함한 시설 전반의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경기 운영과 훈련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투자가 뒤따라



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올림픽 최종 개최 도시로 대한민국 전북 전주가 선정되기까지 군 자원의 관심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우리 전북이 2036 하계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종합사격장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전 세계인에게 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06주년 오수 3.10 만세 운동 재현 임실군, 독립 위한 최초 학생 만세 운동 기려

제106주년 오수 3.10 만세 기념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회장 김학현) 주관으로 10일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1919년 3월 10일 당시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군수, 장종민 군의회 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및 학생, 독립유공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수 3.1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재현행사, 시가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오수 3.10 만세 운동은 오수 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돼 오수 지역에서 전개된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후 만세 운동은 남원, 장수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됐고, 당시 어린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우리는 오수 학생 만세 운동의 발자취와 정신을 되새기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임실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자주찾는 민원업무 안내책자’ 배포

진안군은 ‘2025년 진안군 자주찾는 민원업무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군에 따르면 매년 부서별 종합민원 안내책자를 작성해 군민들이 민원 업무를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다.

하지만 종합민원안내책자가 각 부서의 업무와 신청 서식 등을 담고 있어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으로 제작돼 민원인이 쉽게 검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는 군민들이 자

주 찾는 민원업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담당 팀의 연락처를 표시해 더욱 쉽고 빠르게 민원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책자도 함께 제작했다.

김사춘 민원봉사과장은 “이 안내책자를 활용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진안군 자주찾는 민원업무 안내 책자’는 진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무료 순회 진료 추진

무주군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무료 순회 진료가 내달 19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무주군이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체결한 의료사회공헌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둔 의료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 등 의사 진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14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받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내과를 비롯한 이비인후과, 안과, 부인과, 치과 등 과목의 진료와 함께 X-ray, 초음파, 혈액, 부인과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자 중 2차 검사가 필요한 의료급여대상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무료로 정밀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입원 및 수술도 가능하다.

무주군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대상자 사물관리하고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유증상자 사후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는 취약층 건강검진과 취약지 무료 순회 진료, 유소견자 정밀검사 및 의료 지원 등의 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무주군에는 현재 보건 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등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의원 및 한의원, 치과 등 민간 의료기관 총 38곳이 운영 중이며 무풍, 적상, 부남면 3개 면 지역에는 병·의원 없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열어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의(의장 심 민 군수)가 지난 7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의는 지역 위기상황과 국지 도발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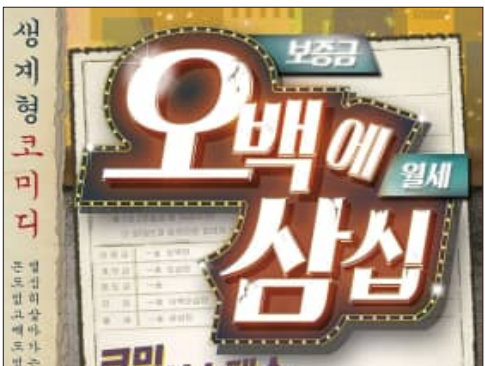
이날 회의는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과 군부대, 유관기관·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7733부대 2대대의 지능해 주요성과 및 급년도 주요 훈련과 기관

별 협조 사항과 홍보 사항 등을 다뤘다.

군내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안보의식 함양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역할과 임무를 점검했다.

심 민 군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민·관·군·경·소방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협력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준다”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서울 대학로 인기 코미디 연극 ‘오백에 삼십’

군산예술의전당이 싱그러운 3월을 맞이하여 유쾌 상쾌 통쾌한 대학로 인기 코미디 연극 〈오백에 삼십〉을 선보인다.

2015년부터 공연되고 있는 〈오백에 삼십〉은 대학로 연극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한편 대구, 광주, 수원 등 지방공연에서도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작품 내용은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받는 서울의 한 낡은 빌라에 웅기쭙기 모여 살던 소시민들 사이에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또한 청년실업, 다문화 가정, 내 집 마련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개성적인 캐릭터들이 실재 없이 웃음을 터지게 만들어 관객을 매료시킨다.

코미 연극 〈오백에 삼십〉은 티켓링크에서 R석 25,000원 S석 10,000원에 구입 가능하며 오는 14일까지는 조기 할인 20%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https://www.gunsan.go.kr/ar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이서면·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 독거 중장년 가구 청소

완주군 이서면이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단장 권오채)과 협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 중장년 가구를 지난 8일 찾아 쓰레기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당 가구는 집안에 폐가전 등 썩은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집을 치울 경제적·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서면은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에 지원을 요청했고, 봉사단에서 흔쾌히 나서줘 청소를 진행했다.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홀몸노인, 장애인 세대 등을 찾아 주거환경정비, 도배 및 장판 교체, 전등 교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오채 봉사단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주는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대상자분이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금 3천만원 전달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30명 꿈키움장학금 100만원씩 전달…희망 잃지 않고 나아가는 청소년 응원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이 10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30명을 선정, ‘꿈키움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각 청소년에게 100만원씩 총 3천만원이 지급됐다.

꿈키움장학금은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며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개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이 10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30명을 선정, ‘꿈키움장학금’을 전달했다

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현웅 원장을 비롯, 이상엽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진해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관 기자

신관철류수건춤이수자신정아씨, 대통령상 수상금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전통예술 계승뿐 아니라 지역 사회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싶다’

신관철류 수건춤 이수자인 신정아 씨가 대통령상 수상금을 지역인재를 위해 기탁했다.

신 씨는 지난 7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전통예술 계승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제47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받은 시상금의 일부다.

신 씨는 “수상금을 보다 의미 있게 쓰고 싶어 기탁을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정읍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탁식에는 신정아 씨와 부친인 신관철 씨, 정읍국악원 무용 교수 김일환 씨가 참석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이번 기탁금을 지역 인재 육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정읍=김정인 기자



신관철류 수건춤 이수자인 신정아 씨가 지난 7일 대통령상 수상금을 지역인재를 위해 기탁했다



군산시 옥구읍·건국우유, 홀어르신 안부 살핀다

군산시 옥구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손수경)는 지난 10일 건국우유 군산대리점과 ‘찾아가는 건강음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건국우유 군산대리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고위험군 1인 가구 22명에게 주 2회 영양 두유를 배달하게 된다. 옥구읍은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안부를 살피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상호 연락하며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찾아가는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옥구읍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손수경 옥구읍장은 “민·관이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홀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해 행복한 옥구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사회서비스원, 장수군에 생필품 박스 기탁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에서 생필품 80박스(800만원 상당)를 보훈단체에 전달해 달라고 기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기탁품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회장 김정안)에서 후원 받은 물품을 기탁한 것으로 삼푸, 칫솔, 참기름 등 7개 품목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최훈식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물품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은 상이군경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7개소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익산시 망성면 새마을부녀회, 봄맞이 사랑가득 반찬 봉사

망성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윤희)는 지난 10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한 반찬 나눔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신선한 재료들로 불고기와 열무김치를 만들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40가정에 전달했다.

박윤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하 망성면장은 “아침 일찍부터 반찬 준비에 힘써주신 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반찬 나눔 활동으로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사 무료급식소에서 따뜻한 나눔 실천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호길)가 지난 10일 천사 무료급식소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배식과 설거지, 식당 환경 정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봉사했다.

최호길 위원장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과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향교동작은도서관, 그림책 원화 전시 운영

향교동작은도서관은 지난 10일부터 ‘동심으로 떠나는 그림책 원화 전시’를 운영한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도서 1권을 선정해 아트프린트 액자를 전시하여, 방문하는 이용자가 원화를 감상하며 작품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책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하여 독서를 생활화할 계획이다.

이달에 전시 도서 ‘긴긴밤’은 제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2021년 출간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지구상에 남은 단 하나의 흰 바위 코뿔소와 버려진 앞에서 태어난 뽀글의 작지만 위대한 사랑과 연대를 그린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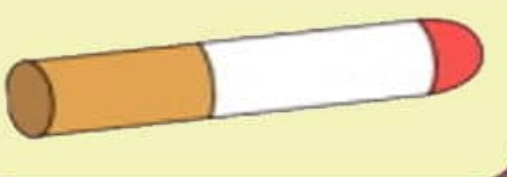
3월 ‘긴긴밤’을 시작으로 4월 ‘봄날의 꿈’, 5월 ‘알고 싶어 네 마음’, 7월 ‘여름이 오기 전에’, 8월 ‘꽃’ 등의 다양한 그림책 원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월 다채로운 주제로 그림책 원화 전시를 개최하여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봄철 화재

부주의로 인한 화재 함께 실천한다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조리중 자리비우지
않기



취침전 향초, 촛불 등
끄기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一事一言〉



극우 전체주의 퇴치는 더 강한 민주주의로(2)

김종대
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

야 6당이 탄핵 국면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모양이지만 민생이나 사회개혁의 의제를 채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협의체를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극우로 경도되는 시민들에게 야당은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여겨진다. 민주주의가 외로운 사람, 불안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박한 사람들은 민주적 질서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된다. 여기에 사회 갈등을 촉진하는 종족 사업가(ethnic entrepreneur)들이 등장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중국이나 북한, 야당 때문이라고 속삭인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만큼 전체주의는 힘을 얻는다.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의 허약한 지점을 공략하면서 성장한다. 극우의 광장에서 힘을 부여하는 사고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기독교식 재림사상이다. 너절하고 번거로운 민주주의는 혼란과 폭력을 막을 수 없으므로 우파 기독교 사상이 그 공백을 대신한다. 종교적 태도는 적과 동지로 사람을 나눈다. 이제 목사님은 적인지 동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너는 누구냐”고 묻는 대심문관이 된다. 시민이 직접 심문관이 되어 동료 시민을 감시하는 검문과 색출이 실행된다. 극렬 시위대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시진핑 XXX라고 외쳐

봐”라며 검열한다.

그 다음으로 위생 감각이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도 우리의 순수한 공동체에 침투한 일종의 기생 바이러스다. 이런 이방인들은 일자리를 빼앗고 전염병을 퍼뜨릴지도 모른다. 극우 광장에서 아동과 여성, 청년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한다. 더러움에 대한 혐오는 동성애자, 이슬람인들에게도 적대감을 표출한다. 그 다음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자위권 의식이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무력하기 때문에 제도 바깥에서 왕국을 따로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유 마을이라는 공동체 구상이나 기독교 대안 학교를 통한 출산 장려로 자신들만의 자급자족형 삶을 지향한다.

이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극우 세력은 군인이나 경찰 출신들을 집회에 초청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자유 통일의 전사를 자임한다. 다음으로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의무와 소명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결단이며 서부지법 난입사태는 폭동이 아니라 혁명이다.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처단하고 제도를 전복시키는 결단력과 대범함이 그 자체로 선이다. 이재명 대표를 칼로 찌른 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부탄가스를 몸에 두르고 분신한 자는 영웅이다. 국민의힘 김민진 의원은 분신 사망자가 사망한 과천 청사 인근의 빈소를 며칠 동안 지키며 백골단식 행동을 촉구한다. 한 국

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은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다음으로 능력주의다. 장애인과 여성,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부당하다. 세상은 정글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힘이 곧 정의다. 일부 청년들은 지방과 외국인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오찬호의 책 제목처럼 “차별에 찬성합니다”라고 외친다. 이런 사고의 특징들은 이상하게도 민주주의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무언가 착작 감기는 느낌을 준다. 그동안 민주적 자유주의자들이 ‘닥치고 공존’을 외치며 사실상 부당한 억압을 자신들에게 행사했다면 극우 세력은 ‘닥치고 전쟁’ ‘닥치고 혁명’을 외치며 세력관계의 전복을 시도한다. 다만 공권력에 비해 아직 힘이 모자라 게릴라식 도발을 벌이지만 언젠가 힘이 결집되면 큰 판의 폭동을 도모할 수 있다.

극우의 비논리성과 총동적 행태가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극우 세력으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 할 희생과 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사실 극우 세력 그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한국의 양극화된 정치 시스템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과벌주의 양당 체제와 승자 독식은 오징어 게임과 다를 바 없다. 신념보다 파벌의 이익에 충성하는 정치인들은 공동체의 선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기독교 엘리트주의는 전체주의를 촉진하

는 불쏘시개였다. 한국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정쩡한 민주주의, 즉 바버라 F 윌터가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제시하는 위험한 구간인 아노크라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차기 정부는 강성 파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인재들이 운영해야 한다.

사실 한국만의 문제만도 아니다. 이미 세계는 ‘전 지구적 내전’에 진입한 지 오래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국을 막을 가드레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극우의 광장을 해산시키고 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견고하며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설계해야 한다. 양극의 중간 지대를 확대하고 선거인 표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연합을 할 때 강했고, 협치와 연정을 약속하며 박근혜를 탄핵한 바 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다가를 대선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노크라시로부터 탈출하는 출구 전략이 될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내란수괴 석방한 ‘심우정 검찰’을 탄핵하라

‘심우정 검찰’이 일을 냈다. 경찰과 공수처가 사력을 다해 구속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풀어줬다. 법원 결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실상은 심우정 검찰이 앞장서서 석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국가의 기간을 뒤흔든 심우정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라 부를 가치조차 없다. 심우정은 이미 검찰총장이 아닌 내란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믿었다. 대통령의 지위를 약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며 내란을 획책한 자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을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짓밟았다. 윤석열은 체포 당 시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 진술을 일삼았다. 대통령의 권위를 짓밟고 법의 권위를 우롱한 윤석열의 행각은 이미 국가 반역에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내란수괴를 구속해 단죄하기는커녕,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빌미 삼아 윤석열을 석방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그 이후의 검찰 태도다. 항고조차 포기하며 윤석열의 편에 선 이들의 작태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명백했다.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

단까지 가는 것. 그 과정에서 국가질서를 지키고 내란수괴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포기했다. 검찰은 즉시항고가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판결 과정이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형사실무를 뒤집는 초유의 판결이 하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내란 사건에서 처음 적용됐다. 국민은 묻고 싶다. 왜 지금인가? 왜 윤석열인가?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과 그 일당의 범죄를 파헤칠 때마다 수사 방해와 수사 외압을 일삼았다. 윤석열 구속영장 집행 후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을 때도 즉각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후 공수처 압수 수색과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 반려 등,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심 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그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이미 건장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 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심우정에게 있고 그의 이러한 결정은 기필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든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화재열전



김제 전교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김제시 오정동 259번지

JBT 전북타임즈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우) 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 박노해

그가 다시 돌아오면
계엄의 밤이 도래하겠지
번득이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의인들과 시위대가 '수거'되었지
광장과 거리엔 피의 강이 흐르고
사라진 가족과 친구를 찾는
언 비명이 하늘을 뒤덮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살림은 얼어붙고 경제는 파탄나겠지
우린 갈수록 후진국으로 추락하겠지
오가는 사람도 드문 스산한 밤거리엔
총소리 군함발 소리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계엄군이 내 가방을 뒤지고 신상을 털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남북이 충돌하고 전쟁이 돌아오겠지
자위대가 상륙하고 미군이 연합하고
긴 내전과 숙청의 날들이 이어지겠지
숨어있던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광복 80년 만에 이 땅은 다시 빛을 잃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모든 방송과 언론과 유튜브에선
검열된 이슈와 재미와 조작으로
눈과 귀를 가리며 관심을 돌리겠지
김건희의 국민 행사와 일상을 띄워대며
패션과 미담의 화제거리로 도배되었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자유도 민주도 선거도 의회도 삭제되었지
빛을 들고 나선 이들이 살살이 색출되고
단 몇 줄 올린 글로
검은 제복이 찾아오겠지
너 좌빨이지, 불순분자지,
완장을 찬 극우대의
광기 어린 폭력에 숨도 못 쉬겠지
아아 그가 다시 돌아오면,
저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버젓이 권좌에 도사린 채
내란을 지속하고 내전을 불지르는 자들
지금, 빛으로 끌어내 처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뿌리째 뽑아내 청산하지 않는다면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https://www.jeonbuktimes.co.kr>

백제 지방 거점 남원 척문리산성, 백제시대 집수시설 발견

사비기 행정구역 · 관등명 최초 확인
백제 인장과 · 기년명 기와 다량 출토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하가로 추진된 남원 척문리산성(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집수시설(集水施設)과 북문지(北門址)가 새롭게 발견, 사비기 행정구역과 관등명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 집수시설: 성내의 용수 확보와 우수(雨水) 시 유속을 줄여 성벽 및 문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물을 모아 놓은 시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백제 사비기 지방 거점 산성으로 알려진 남원 척문리산성에서 발견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남원시와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이어오면서 성벽, 문지, 집수시설, 도수시설, 건물지 등을 조사해온 만큼 이번 발견 1호 집수시설은 평면형태가 말각장방형이며, 벽석과 바닥면에서 대형 결합목제로 밝혀져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집수시설 내부에서 6점의 목간(木簡)이 출토되었는데, 목간에 묵서로 쓴 '상항(上巷)', '중항(中巷)', '장덕(將德)' 등의 글자가 확인돼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상항'과 '중항'은 백제 사비기 행정구역인 5부(部) 5항(巷)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이번 남원 척문리산성 집수시설에서 이를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백제 중방성으로 알려진 고사부리성[사적] 상부상항(上部上巷)명 문자기와, 상부상항이 음각으로 새겨진 목제품 등까지 출토되어 백제에서 실제로 항제(巷制)가 실시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장덕 글자의 경우 백제의 16관등 중 제7품 관등 명칭에 해당하는 만큼 백제의 관등이 백제 목간에서, 묵서로 기록된 처음 확인된 사례여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 목간 :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목제품

이외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병오(丙午, 516년 또는 576년)와 병신(丙申, 526년 또는 586년)명의 인장과와 기와가 다량 출토, 이를 통해 척문리산성은 백제 사비기 성왕~위덕왕 때에 해당하는 시기에 산성이 운영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 인장과 : 도장 찍힌 기와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삼족토기, 개배, 대호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창, 철제가위 등의 금속류 유물을 비롯해, 목간을 비롯한 목기, 두레박, 가공목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또 동물 뼈와 식물유기체가 출토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집수시설 및 사비기 행정구역과 관등명 결과 등을 통해 백제 행정구역과 관등체계를 실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원시는 앞으로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척문리산성의 역사성과 가치를 밝히는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척문리산성 주변 항공사진



▲집수시설 내부 결합목제



▲기년명기와 병오



▲기년명기와 병신



▲기년명기와 병신



▲집수시설 출토 목간



▲집수시설 출토 목간



▲척문리산성 북문지 발굴조사 후



▲집수시설



**이맛이
청정라거다!**

리얼탄산100% 청정맥아100%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



광고: 지니션 음주는 뇌졸중, 기전력, 수면장애, 비만, 과체중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제조사/판매사: 에이트진로)